



22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에서 KIA 5번타자 이범호가 6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때린 외야 플레이어가 태양과 겹치며 SK 우익수 조동화가 잡지 못하는 바람에 2루까지 뛰어 세이프 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든든한 형님



KIA, SK에 워닝시리즈

“형이니까 짐을 더 들겠다”는 김광수(35)와 “베테랑이라서 더 잘해야 한다”는 김민우(37). 투·타의 베테랑이 KIA의 워닝 시리즈를 합작했다.

KIA 타이거즈가 2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즌 5차전에서 7-4 승리를 거뒀다. 앞선 두 경기에서 SK와 1점 차 승부를 펼치며 1승1패를 주고받았던 KIA는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워닝 시리즈를 만들었다.

“마무리 고민”을 잊게 한 김광수의 위력투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플레이로 2안타 1타점 1득점 1도루를 올린 ‘2번’ 김민우의 활약이 있었다.

4경기 연속 세이프 김광수 “형이니까 짐 더 들겠다”

김민우 2안타 1타점 1득점 “베테랑이 더 잘해야죠”

김민우가 지난 20일 1군 복귀 후 처음 스타팅 멤버로 나섰다.

2번 타자 겸 2루수로 나선 김민우는 1회 말 첫 타석에서부터 안타를 때려냈다. 선두타자 김호영이 13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내야 안타로 출루하면서 세든을 흔들었다. 그리고 김민우가 우중간을 가르쳐 2루타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3회초 지크가 선두타자 김재현에게 안타를 맞은 뒤 3루수 이범호의 송구실책이 나오면서 무사 2·3루에 몰렸다. 박재상의 땅볼과 최정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1-2로 승부가 뒤집혔다.

그러나 3회말 이번에는 KIA가 똑같은 실책에 웃었다. 김호영이 3루수 내야안타로 출루를 했고 3루수 약속구가 나온 사이 2루로 향했다. 첫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던

김민우가 이번에는 착실하게 보내기 번트를 성공시키며 1사 3루의 기회를 만들었다. 김주찬의 적시타에 이어 나지완의 볼넷으로 1사 1·2루. 더블 스틸에 허를 찔린 포수 김민식의 송구실책과 중견수 김재현의 송구 실책이 동시에 나오면서 KIA가 4-2, 재역전에 성공했다.

6-3의 리드가 이어지던 7회 김민우가 득점도 기록했다. 1사에서 중전안타로 출루한 김민우가 2루 베이스를 출진 뒤 김주찬의 적시타로 홈을 밟았다.

김민우의 만점 활약 속에서 7-4로 앞선 상황에서 9회를 맞은 KIA는 베테랑 김광수를 마운드에 올렸다. 김재현과 이진석을 상대로 연속 헛스윙 삼진을 잡아낸 김광수가 박재상에게 우전안타를 허용했다. 그러나 김광수는 최정과의 승부에서 2루

수 플라이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채우며 시즌 5번째 세이브에 성공했다. 5월13일 한화전에 이어 4경기 연속 세이브이기도 하다.

김민우는 “컨디션은 전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 시즌 초반에는 너무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야구가 안 됐다. 마음을 비우고 하니 잘 된 것 같다. 감독님께서 작전을 하라고 2번에 넣으신 것이라고 생각했고, 성공을 하려고 했다. 도루 타이밍이 나 이런 것들은 베테랑이니까 더 잘하는 것이고, 더 잘해야 한다. 승리에 역할을 해서 기쁘다”고 밝혔다.

집단 마무리 체제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김광수도 “부담은 있지만 불펜에서 동생들이랑 형이랑 무거운 짐을 나눠 들면서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내가 형이니까 조금 더 부담을 안고 가려고 한다”며 “주중에 쉬었기 때문에 컨디션은 좋다. 필요할 때 많이 나가서 역할을 하는 게 목표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씩씩한 아우

고졸 루키 전상현 프로데뷔전 4이닝 5실점 “맛을 각오로 투구...다음엔 첫 승하고 싶어”

20살 전상현의 잊을 수 없는 데뷔전이였다.

KIA 타이거즈의 2016시즌 10번째 선발 투수는 고졸 루키 전상현이었다. 전상현은 지난 21일 SK와이번스와의 홈경기에서 프로데뷔전을 치렀다.

윤석민·임준혁의 부상으로 생긴 선발 공백에서 한기주·임기준·최영필·정용운이 선발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이번에는 ‘아기 호랑이’ 전상현에게 기회가 왔다. 대구 상원고 출신의 전상현은 2차 4라운드로 KIA 유니폼을 입은 루키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팔꿈치 수술을 하면서 1년 늦게 졸업했지만 기회는 빨리 찾아왔다.

“신인 투수” 보호 정책에 따라 1군 스프링 캠프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퓨처스 리그 6경기에서 2.1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29.1이닝 동안 28개의 탈삼진을 뽑아낸 전상현은 볼넷은 9개밖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1군 풀업을 받았다.

전상현의 프로 첫 기록은 4이닝 5피안타(2피홈런) 2사사구 1탈삼진 5실점(4자책). 1회 1사에서 박재상에게 프로 첫 피홈런을, 4회에도 최승준에게 투런포를 얻어맞았다. 좌익수 김주찬의 실책성 플레이와 이범호의 실책이 나온 3회에도 박재상과 정의준에게 적시타를 허용했다. 하지만 씩씩한 피칭과 매서운 제구로 가능성을 보였다.

전상현은 “생각보다 빨리 기회가 왔다. 내가 선발로 나갈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선발로 나오게 될 줄은 몰랐다. 누나랑 부모님이 부담줄까봐 물레 오셔서 경기를 보셨다”며 “좋은 경험이었다. 많이 긴장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떨리지 않았다.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넣고 자신있게 한 것 같다. 차라리 맞자는 생각으로 자신 있게 던진 것은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했다.

진짜 무대를 경험한 전상현은 ‘프로의 조건’도 배웠다.

전상현은 “1군 타자들은 확실히 달랐다. 실투를 놓치지 않았고 힘이 달랐다. 홈런을 맞은 게 많이 아쉽다.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고 구속도 올려야 할 것 같다”며 “더 던지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거기까지였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첫 승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루키의 고군분투 데뷔전을 지켜본 김기태 감독은 “맞긴 맞았지만 잘 던졌다. 고졸 신인 선수가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고 그랬겠는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발로 나왔다는 자체가 대단하다. 축하해주고 싶다. 한번 더 지켜봐라 하지 않겠나”며 합격점을 줬다.

이대진 투수 코치도 “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는 컨트롤이 장점이다. 평소보다 스피드가 조금 덜 나왔는데 힘을 키우고 스피드를 더 끌어올리면 좋은 투수가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에서 KIA 전상현이 선발로 등판 투구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임창용, 선수뎀 꼬맹이였는데...”

덕아웃 T 특특

▲긴장하면서 받았어요 = 고향으로 돌아온 임창용이 챔피언스필드 불펜에 등장했다. 함평 웰린저스필드에서 훈련을 해오던 임창용은 지난 20일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1군 선수단에 임시 합류. 1일과 22일에는 불펜 피칭을 하면서 몸을 풀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72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실전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력은 여전한다는 평가다. 임창용의 공을 받은 불펜 포수 최규상은 “70~80프로로 던졌는데 공의 무브먼트가 좋아서 잡기 힘들었다. 움직임이 좋아서 신인 이후 처음으로 긴장하면서 받았다. 마지막에는 100%로 던진 공을 잡았는데 미트가 밀릴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선수 때는 꼬맹이였는데 대장이더라 = 김기태 감독에게 임창용은 여전히 꼬맹이 선수 같다. 컨디션 점검차 1군 선수단을 찾은 임창용. “슬쩍 피칭하는데 지난해에도 시즌을 뛰었고도 괜찮은 것 같다. 던진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 6월 정도에는 연습 경기에도 나올 수 있

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또 “선수 때는 꼬맹이였는데 지금 보니까 대장이더라”며 옛 생각을 하며 웃었다.

▲무슨 일 있나? = KIA의 외국인 선수 브렛 필이 22일 경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전날 5타석에서 안타 없이 삼진을 2개만 기록하는 등 부진했던 필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라인업에서 빠졌다. 경기 전 필의 라인업 제외에 대해 이야기하던 김기태 감독은 “(필이 요즘) 무슨 일 있나?”며 아쉬운 미소를 지었다. 최근 공·수에서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필에 대해 “공이 뜨겁나? 수비에서도 그렇고 나쁜 볼에 손이 나가고 있다”고 아쉬워 한 김 감독은 “그래도 성실한 선수니까 좋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저도 일고예요 = 훈련 시간에 티격태격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나지완과 광정철. 선배 나지완이 “학교 어디 나왔나?”고 장난스럽게 묻자 광정철이 “광주의 자랑 광주일고입니다”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웃으면서 배팅훈련을 하기 위해 그라운드로 나가던 나지완이 취재진을 향해 조용히 이야기를 했다. “저도 일고예요. 신~일고”. 나지완은 서울 신일고 출신이다. /김여울기자 wool@

양현종, 광주기자단 선정 4월 MVP

KIA 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이 광주기자단이 선정하고 구단 지정병원인 밝은안과21병원이 시상하는 4월 월간 MVP를 받았다.

4월 5경기에 선발로 나온 양현종은 33.2이닝 동안 탈삼진 24개, 평균자책점 3.48, 4차례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선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20일 광주 SK전에 앞서 시상식이 이뤄졌으며, 이날 시상은 밝은안과21병원 윤길중 원장이 했다. (사진) 시상금은 100만원이다. 양현종은 시상금 중 5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투수 홍건희와 내야수 김주형은 구단 공식지정병원인 연희한방병원이 시상하는 4월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다.

홍건희는 4월 한 달 8경기에서 13.1이닝을 소화하며 2.70의 평균자책점과 15개의 탈삼진, 1세이브를 기록했다. 특히 중간계투는 물론 마무리까지 전전후 활약을 해줬다. 김주형은 4월 22경기에 나



와 80타수 22안타(타율 0.275) 6타점 10득점의 활약을 했다.

시상은 연희한방병원 최광준 원장이 했고, 상금은 50만원이다.

‘이달의 감독상’은 매달 투수·야수 각 1명에게 돌아가며, 김기태 감독이 팀을 위해 공헌한 선수를 직접 선정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LPGA 대세 박성현 매치퀸도 접수

시즌 4승·상금 6억 돌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대세’로 자리를 잡은 박성현(22·넵스)이 고대하던 매치플레이어 여왕 자리도 꿰찼다.

박성현은 22일 강원도 춘천 라데나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김지현(25·한화)을 연장 접전 끝에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시즌 4번째 우승으로 상금 1억2천만 원을 보낸 박성현은 다승 1위와 상금 선두, 대상 포인트 1위 등 각종 부문 맨 윗 자리를 굳게 지켜 이번 시즌 독주 기반을 더 확고하게 다졌다.

6개 대회 만에 시즌 상금을 6억2천767만원으로 늘린 박성현은 최단 기간에 시즌 상금 6억원을 돌파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이에 따라 김효주(21·롯데)가 2014년에 세운 시즌 최다 상금 12억890만원에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가



됐다. 또 작년 전인지의 시즌 5승 뿐 아니라 2014년 김효주(21·롯데)가 세운 시즌 6승도 넘어설 지도 주목을 받게 됐다. KLPGA 투어 시즌 최다승 기록은 2007년 신지애(28)의 9승이다. /연합뉴스

양학선 추천 선수로 올림픽행

‘도마의 신’ 양학선(24·수원시청)이 추천 선수로 선발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격할 길이 열렸다.

대한체조협회는 22일 서울 공동 태릉선수촌 개관관에서 열린 남자 기체제 2차(최종) 선발전이 끝난 뒤 강화위원회를 열어 양학선을 추천 선수로 선발했다.

양학선은 이틀간 진행된 선발전에 참가하기는 했으나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연기는 펼치지 못해 함께 점수 0으로 참가 선수 15명 중 최하위에 그쳤다.

지난 3월 23일 훈련 도중 아킬레스건이 다쳐 수술대에 오른 양학선은 현재 끊어졌던 아킬레스건이 붙었고, 발목 보조기를 댄 상태지만 부상 재발을 막기 위해 무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협회는 양학선이 아킬레스건 재활 중임에도 선발전에 참가한 열의와 빠른 재활 속도를 감안해 추천 선수로 선발해 리우 올림픽 무대를 밟을 길을 열어줬다. /연합뉴스